

A close-up photograph of pink cherry blossoms (sakura) in full bloom, with some buds and green leaves visible. The background is softly blurred.

통권 제 185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03

3·1 운동 100주년  
광복의 투지



봄날 디딤돌



식물 이야기  
변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위드 다라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심신  
信心

보리심菩提心을 발달하는데 제일근본第一根本은 신심信心이라  
 신심이라하는 것은 맑은물과 같음이라  
 그 마음을 결정決定하여 산란散亂하지 않음이며  
 신심은 곧 환희歡喜하여 모든 우뇌憂惱 여왕이며  
 신심은 곧 해태심懈怠心을 일으키지 않음이며  
 신심은 곧 남의 선善에 수희隨喜하는 마음이며  
 신심은 곧 유덕자有德者에 존경尊敬하는 마음이며  
 신심은 곧 교훈敎訓함에 수순隨順하는 마음이며  
 신심은 곧 남의선행善行 찬탄讚歎하는 아량雅量이며  
 신심은 곧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음이며  
 신심은 곧 착한행爲을 애락愛樂하는 마음이다  
 이와같은 마음으로 선악인과善惡因果 굳게믿고  
 행원승의行願勝義 깨쳐감이 보리심菩提心이 되느니라



# 워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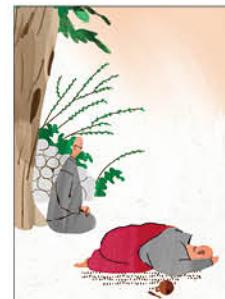
##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 불교이야기 \_ 04

계학이란  
무엇인가?  
\_ 화령 정사



## 계율이야기 \_ 14

승가에서의 생활 (1)  
\_ 법경 정사



## 살다보면 \_ 20

휠체어 위의 승자勝者  
\_ 이옥경

2563  
2019  
**03**

## 04 불교이야기

- 10 마중물
- 14 계율이야기
- 20 살다보면
- 26 향유
- 32 산책
- 34 십선성취
- 38 마음의 등불
- 42 생활 속 식물이야기
- 46 백유경
- 48 3.1운동 100주년
- 52 새이야기
- 56 디딤돌
- 58 씨앗 한알
- 62 거꾸로 보기
- 66 독자기고
- 68 차향기
-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4 뜻 바루기
- 76 되짚어보기
-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 계학이란 무엇인가? \_ 화령 정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_ 천진스님, 현현스님

승가에서의 생활 (1) \_ 법경 정사

휠체어 위의 승자勝者 \_ 이옥경

내 집에 계신 보살님 \_ 강동현

사람 \_ 김대곤

마음 \_ 덕현 전수

매화를 보며 \_ 조문수

변해도 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_ 이태용

왕의 재판 \_ 동출 스님

광복의 투지 \_ 보현 전수

두루미 \_ 정옥식

봄날 \_ 지현 전수

노력 없이도 완벽한 삶 \_ 법상스님

한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2 \_ 박현희

친구 같은 전수님들 \_ 여순애

묵은 차 활용법 \_ 김정애

다섯 손가락의 싸움 \_ 법일 정사

대비태장생만다라大悲胎藏生曼茶羅 \_ 김재동

무용지용無用之用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어느덧 봄이

- 최하림

어느덧 봄이 온다  
베란다 철쭉엔 연지처럼  
봉오리가 오르고 따스운 별들이  
고물고물 모여 하루를 보낸다

유리창 밖에서는 치운 바람이  
고개를 넘고 넘어오려고 하지만  
꽃나무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 곳에 평화가 있다  
나는 평화 속에서 창밖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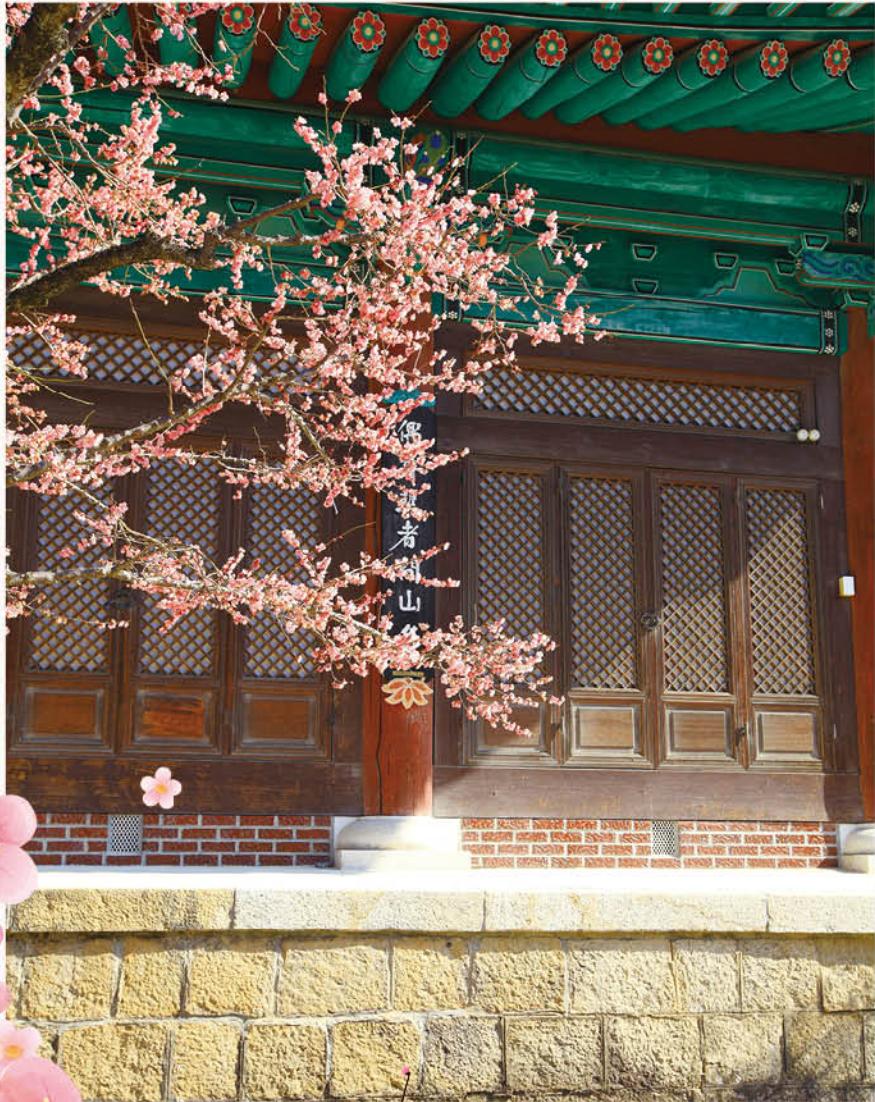
먼 나무들이 넘실거리고  
집 나간 식구들은 오지 않고  
길들이 들판으로 뻗어나가  
시간을 기다린다  
길 위에서 농부들이 구루마를 끌고  
별일도 없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고 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봄도 간다



# 계학이란 무엇인가?

##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 계와 율의 차이

불교 실천의 3가지인 삼학 가운데에서 가장 첫머리에 오는 것은 계학<sup>戒學</sup>입니다. 삼학에서 말하는 계학이라는 것은 계를 배운다기보다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학의 목적은 계에 의하여 우리의 심신을 다스림으로써 정에 들어가기 쉽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계라고 하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등등 어떤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계는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때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올바른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태도와 생활이 절도가 없고 절제되지 못하면 고요함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는 술도 마시지 않고 이성과 성적인 접촉도 하지 않으며 음식 등도 극히 조심해서 몸을 돌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의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만하고 절도 없는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고요하게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는 선정의 근본이 된다고도 하고



훌륭한 선정을 위해서는 빈틈없이 계를 지키는 청정지계<sub>淸淨持戒</sub>가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행자인 체 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어떻게 크고 훌륭한 집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종일관 계행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에 대해 《중일아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일을 닦고 널리 퍼야 한다. 이 한 가지 일을 닦으면 명예를 얻고 큰 과보를 얻어 온갖 선이 두루 모이게 되고 감로미를 얻어 무위처<sub>無爲處</sub>에 이르게 되며, 신통을 이루고 온갖 산란한 생각을 제거해 사문과에 이르며, 스스로 열반을 이루게 된다. 그 한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계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계를 생각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선을 쌓으며, 오묘한 경지인 감로미를 얻고, 깨달음의 경지인 무위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란한 생각을 멈추고 신통을 얻으며 아라한이 되어 열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계는 온갖 악을 그치게 하는 까닭에 도를 이룰 수 있게 하고, 사람들

을 기쁘게 하며, 계는 몸을 휘감아 온갖 좋은 일을 나타나게 한다. 무릇 금계<sub>禁戒</sub>란 길상병<sub>吉祥病</sub>과 같아서 바라는 바를 성취하게 하며, 모든 도품법<sub>道品法</sub>은 다 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금계를 지키는 이는 큰 과보를 얻어 온갖 선이 두루 모이게 되고, 감로미를 얻어 무위처에 이르게 되며, 신통을 이루고 온갖 산란한 생각을 제거해 사문과에 이르며, 스스로 열반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늘 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온갖 좋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계를 지키면 모든 악을 멈추게 되고 바라는 바를 모두 성취하게 되며, 불교의 모든 수행은 계를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계가 모든 선법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로서, 늘 계를 지킬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실라<sub>sila</sub>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습관’이라든가 ‘습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인 것은 선이 든 악이든 모두 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라고 할 때에는 선의 쪽만을 말합니다. 즉, 계라는 것은 심신에 선을 행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강제적이거나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벌칙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해당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흔히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계와 율로 나누어집니다. 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율은 타율적인 규제의 성질이 있습니다. 율은 산스크리트어로 비나야<sup>vinaya</sup>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훈련’, ‘제지’, ‘조복’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 의의 삼업 가운데에서 몸과 말의 두 가지를 조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가자의 생활규범과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출가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타율적인 규제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계<sup>五戒</sup>라고 부르는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불음주 같은 것은 자율적인 면이 강한 계이지만, 이것이 승단에서 적용되면 윤이 될 수 있습니다. 살생을 한 비구는 말할 것도 없고 투도와 망어, 사음, 음주를 한 출가승은 승단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재가자들에게는 자율적인 계이지만 이것이 승단에서 적용될 때는 추방을 받는 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와 윤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은 승단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장》에 잘 기록되어 오늘날 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윤을 정해 놓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하는 것을 수법수제<sup>隨犯隨制</sup>, 혹은 수연제계<sup>度緣制戒</sup>라고 합니다만 계는 수법수제는 아닙-

니다. 계와 윤은 엄밀하게 나누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과 타율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용하여 그냥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윤을 설하는 가운데에 계가 설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를 설하면서 윤도 포함하여 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단에서는 보통 비구들은 250계를 지켜야 하고, 비구니들은 348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계와 윤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윤이라고 해야 하지만 이렇게 계라고도 하고 계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서는 계와 윤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율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

#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천진스님, 현현스님  
조계종 흥서원



이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면, 우주 전체가 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몸만 자기라고 착각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 자기 것인데, 최고로 부자인 사람이, 이 조그마한 몸뚱이에 잡혀서 ‘이게 나다’라고 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가사의한 보배입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는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난 진정 부자야. 난 진정 행복해’라고 믿어 한 번 시도해보세요. 그때부터 자신의 부자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매일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웃 안에다 말로 할 수 없어 값진 보배 구슬을 훠내고 갔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보니, 가난한 친구가 아직도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부자 친구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 고생 하지 말라고 자네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웃 속에 보배구슬을 훠내주고 갔는데, 어째서 아직도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각자가 보배여의주를 갖고 있는데도 안 쓰고 사는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보배 여의주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슬은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그런 구슬입니다. 그것을 찾기만 하면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비록 찾지 못해도 부처님께서 누구나가 다 그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하

셨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마음은 내지 마세요. 절대 가난한 마음은 내지 마세요. “난 부자야”라는 마음을 내야 보배 구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30살 이후로 원하는 대로 안 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도 가난한 바보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지금 6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 봐요. 당첨금을 1년 뒤에 찾는다고 해도, 그 남은 일 년 동안 가난한 마음이 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인 줄 안다면, 더 이상 부처님께 구걸하는 기도는 하지 않게 됩니다. 100억 있는 사람이 돈 빌려 달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왜 남한테 달라고 합니까? 부자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부자 마음 때문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난 항상 기쁜 존재’라고 마음먹으면 그 기쁜 마음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난 문제없고 충만한 사람 이야’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가족들도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은 심법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슬픈 마음을 먹으면, 전 존재가 그 슬픔에 동참해서 자꾸 슬픈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유하는 것은 전

체가 사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짜증 내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궁정! 우리 마음이 바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부자가 되고, 짜증과 슬픔을 전해주면 줄수록 가난해집니다. ━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 승가에서의 생활 (1)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46

## 승가에서 지켜야 할 규칙

출가자가 승가에서 지켜야 할 규칙 가운데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을 바일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식주의 내용 가운데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몸의 청결과 위생에 대한 내용, 둘째는 의복과 침구 관리, 셋째는 치병<sub>治病</sub>과 약식<sub>藥食</sub>, 넷째는 음식 관리와 식사, 다섯째는 주거지에 대한 규칙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수행자의 위의의 문제로서 승가의 청결, 위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음식의 경우는 탁발을 나갔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나 주의해야 할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먼저 몸의 청결과 위생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비구 비구니는 항상 몸을 단정히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석존의 가르침이다. 특히 손발을 깨끗이 씻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늘날의 건강수칙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사분율』에서는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발병<sub>發病</sub>과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리를 씻은 손으로 물그릇을 만지지 말라고 한다. 다리나 발을 씻을 때는 한 손으로 물그릇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과 다리를 씻으라고 한다. 또한 다리에 묻은 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가죽신을 신어서 신발을 썩게 하니 부처님



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발을 잘 닦고 난 후에 가죽신을 신으라.”

또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로서 식사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으라’, ‘탁발을 나가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밥을 받으라’고 석존은 강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이나 음식을 건네줄 때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결과 위생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더운 날씨를 감안할 때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인다. 만약 승가에서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승가의 안녕과 질서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존은 개인의 위생관리를 크게 강조하였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가 길면 깎아야 한다.

손톱이 길면 깎아라.

콧속의 털은 보이지 않게 뽑아야 한다.

수염과 머리는 모두 깎아라.

귓속에 때가 끼니 귀마개를 만들라.

혓바닥에 때가 끼니 혀 닦는 칼을 만들라.

몸에 땀 냄새가 나니 땀 닦는 것을 만들라.

몸에 침을 빨라 긁지 말라.

입에 냄새가 날 때는 버드나무 가지를 썹으라.

몸이 더럽고 냄새가 나니 진흙이나 향을 섞어 발라라.

자주 자주 목욕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승가의 중요한 수행덕목이다. 비구 비구니의 위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위의를 갖추는 길은 바로 청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수행자가 더럽거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면 과연 법이 제대로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재가자들이 말하기를, “사문<sup>沙門</sup>이 아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수행자가 아니다. 청정한 행이 아니다. 깨끗한 행이 아니다. 출가자의 위의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장면을 울장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닦을 때는 온실, 식당,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하지 말고 으슥한 곳에서 하라고 하였다. 이는 위생과 청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중생활에서의 공중도덕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양치를 한다고 가정해보라. 얼마나 역겨운



일이며 비위생적인 일인가. 그리고 종종 아무 곳에서나 침이나 가래를 벨는 사람들도 있다. 더러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의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 수행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수행자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마저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몰지각한 사람이자 상식이 없고 생각과 뇌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비위생적인 행동은 정말 삼가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존은 의복과 침구를 잘 관리하라고 설하였다.『사분율』의 내용이다.

어떤 비구니가 옷을 방에 두고 자주 돌보지 않아 별레가 먹고 빛이 바랬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찌하여 가사를 손질도 하지 않아 별레가 먹고 빛이 변하게 하였는가!”하고 비방하자 석존께서 그 비구니를 크게 꾸짖으셨다. “네가 한 것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요,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요, 수순하는 행이 아니다.”하시며,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하노니, 어떤 비구니가 5일이 지나도록 가사를 돌보지 않으면 바일제에 해당하느니라.”하셨다.

석존은 의복을 5일이 지나도록 돌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어기지 말라는 계를 제정한다. 왜 5일인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5일을 넘기지 말라고 한 것은 아마도 별레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출가 수행자가 몸과 의복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수행자의 위의를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청결한 몸과 의복이 수행자의 위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자란 몸과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서 마음까지 깨끗해야 한다.▲



## 휠체어 위의 승자<sub>勝者</sub>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3월 14일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분야에 큰 성과를 남긴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전에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집필했다는 유작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 출간돼 세간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최연소 왕립학회 회원, 케임브리지 대학 루카시언 석좌교수, 갈릴레이 · 뉴턴 ·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세계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 로마교황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명성과 함께 영국 왕립천문 학회 에딩턴 훈장, 영국 물리학회 맥스웰 상, 영국 왕립학회 퓐즈 훈장, 미국 물리학회 하이네만 상,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 대영제국 3등급 훈장, 영국 왕립천문 학회 금메달, 이스라엘 울프 재단 울프 상(물리학 부문), 영국 왕립학회 코플리 훈장,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 등 물리학자로서의 공적을 대변해 주는 화려한 상훈의 이력을 지닌 스티븐 호킹 박사.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먼저 떠올리는 건 오른쪽으로 뒤틀린 머리, 두 손으로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 조정기를 쥐고 휠체어에 눕다시피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다. 위대한 과학자에 앞서, 루 게릭이라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으로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이후 50여 년을 더 살면서 연구와 저술, 강연 활동에 매진했던 인간 승리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바치는 그에 대한 존경은 물리학자로서의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으나, 장애에 굴하지 않는 도전과 자존의 삶에서 더 큰 감동을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병이 진행되면서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말하는 것도, 읽고 쓰는 것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호킹 박사가 택한 것은 좌절이 아닌 희망이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 두 개뿐이었지만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에 몰두했으며, 평생을 병과 맞서 싸우면서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1985년에 찾아온다.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기관지 절제 수술을 받은 후 목소리를 잃게 되었지만, 그 일 또한 그에게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그의 휠체어에 새로 장착된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뿐이었다. 케임브리지대학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이 특수 장치는 얼굴의 움직임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서 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호킹 박사는 이것을 통해 의사소통은 물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꽂히는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 중 하나가 1988년에 발간되어 그를 전 세계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대중에게 물리학을 알리는 강연자로 명성을 떨치게 한 대중 과학도서 『시간의 역사』다. 시간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영국에서 237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큰 인기를 끌었고, 40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900만부 이상이 팔리기도 했다.

2009년 은하 우주선 버진 갈라티카를 타고 무중력 비행 체험에 나선 그의 모험기를 들어 보셨는지. 보잉 727기를 개조한 체험선이 고도 9,800m 상공으로 치솟은 뒤 2,400m를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는 동안 만들어진 무중력 상태에서 25초씩 8차례의 무중력 곡예비행을 하는 그의 모습이라니….

자신의 병에 대해서조차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한다. 내 조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 병이 나를 가로막는 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했던 호킹 박사의 말은 그가 남긴 위대한 학문적 성과보다 더 큰 울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우리 주위에는 신체장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휠체어 위의 승자들이 참 많다. 링컨, 조지 워싱턴에 이어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꽂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를 타게 됐지만 1932년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재선에 성공해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됐다.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척수 마비가 된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는 기관지 튜브를 통해서만 호흡이 가능한 전신마비 상태에서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사고 1년 뒤부터 미국 연방의회에 나가 척수 부상 연구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애틀랜타 패럴림픽 사회, 전미 척수 마비협회 이사장, 케이블 TV 드라마 감독 등 왕성한 활동에 나섰다.

13전 전승 무패의 복서 크레이그 보자노프스키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 재기불능 판정을 받은 후 18개월 만에 의족을 하고 링에 올라 KO 승을 거두며 14연승의 기록을 이어갔다. 경기에서 이긴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던 그야말로 진정한 승자였다.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에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장애인 노르딕 스키의 신의현 선수의 고군분투도 멋지다. 스물여섯 살의 대학생 신의현은 두 다리를 잃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3년 동안 실의와 좌절을 겪기도 했으나 스포츠를 통해 삶의 희망을 일구어가고 있다.

'빙판 위의 메시'로 불리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정승환 선수도 다섯 살 때 상수도관 파이프에 깔리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각종 스포츠를 두루 섭렵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동메달을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전국장애인 체육

대회(하계종목) 조정경기에 출전해 2인조 단체전 1,000m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들에게서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초기 불전 우다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불행이나 고통을 이겨내는 일이 어찌 쉽지만 하겠는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떨치고 일어나 힘차게 걸으라는 말이 어찌 위안이 되겠는가. 그러나, 답은 늘 자신에게 있다. 느리지만 힘차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진정한 승자들이 그 답을 들려준다. ━





며칠 사이에 짜증이 늘어서 혼났다.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짜증이 늘었는데 몸도 여기 저기 아픈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다. 늙어서 그렇단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먹고 나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바닥에 앉아 염송하다가 일어 날 때면 앓는 소리가 절로 난다. 어디 어디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응석이라도 부리면 엄마는 이미 겪은 일이고 아픔이라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자주 해 주신다. 엄마가 같은 여자로 느껴지니 더 살가워진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오롯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늙으신 어머니의 오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도 내 엄마의 지극정성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나쁜 딸이었다.

그 동안은 엄마니까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돈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보니 내 엄마의 아픈 사정을 조금 알 것 같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비나 기구를 사다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했다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나였지만 지금은 시간을 내서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간다. 함께 늙어가면서 나는 참 무심한 딸이었다. 마음 깊이 참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뒤늦게 내가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엄마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마음껏 무엇을 할 수 없었고, 엄마 살림에 내가 약간 거둔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자충우돌 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물론 엄마의 감독을 받고 있고,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살림을 하고 보니 부족한 것이 이토록 많다는 자각이 들었다. 나는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설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름 봉사를 다니면서 했던 설거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년간 쌓은 범당을 쓸고 닦는 기술은 집 안 청소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청소나 설거지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한 부분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날마다 청소를 해도 청소할 것이 많고 열심히 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혼나기 일쑤였다. 설거지도 다시 배워야했다.

나이가 몇인데 보고 배운 것이 별로 없었다. 그동안은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엄마의 실력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 청소를 하다하다 힘들어서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버리지 못해 엄마의 눈치를 보던 것들도 과감히 버렸다. 집에 있던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버리고 해서 꽉 찬 집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청소도 이제 할만하다. 설거지를 하다가 깨먹고 식탁을 치우다 깨먹은 그릇이 많다보니 깨질 때 깔끔하게 깨지는 그릇을 사는 기술이 좀 늘었다. 그릇을 안 깨먹는 기술은 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시간이 더 흐르면 깨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다. 집 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 지금은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마음껏 사는 것에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다. 서툴지만 요리를 하고 있고, 맛은 여전히 없어서 요리를 하다가 엄마 찬스를 쓰기도 한다.

냉동실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고 옷장 안에 가득 차 있는 옷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집이 더 깔끔해졌다. 이러다보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들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이 큰 살림을 엄마가 책임지고 해 왔다는 것이 놀랍고 미안했다. 엄마의 그동안의 노고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허세를 부릴 수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내 집 일도 잘 못하면서 봉사는 잘도 다녔다. 내 집에 계시는 보살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엄마가 관리하던 어항은 남편이 관리를 하고 화분들은 내가 돌보기 시작했다. 엄마는 뭔가를 살리는 사람이지만 나는 종종 죽여서 화분들의 생명이 간당간당하다.

키우는 새랑 말을 하고 새장을 챙기는 것도 이제는 내가 하고 있다. 엄마가 거실에 나오면 물고기들도 엄마한테로 모여들고 새도 더 크게 소리를 낸다. 이 집의 주인은 그동안 엄마였다. 새한테 모이를 주고 새장을 청소하듯이 우리를 데리고 잘 살아 주신 거다. 날마다 고마워하고 있다.

날마다 엄마한테 참회를 하고 있다. 그동안 무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투덜댔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이었고, 염송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끔은 빼먹었는데 그건 일에 대한 요령이 없어서 여분의 시간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좀 더 건강한 삶이 되고 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조차 주인이 지 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이 건강하시니 자식들 마음고생을 안 하고,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다. 고난 속에서도 그나마 이 정도의 건강이라도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고 있다.

내가 늙어가고 있으니 다 다르게 보인다. 엄마의 아픈 사정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고 서운한 것이 무엇인지 해야려 보게 되었다. 내 삶의 걸만 본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를 잘 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한다.

그건 내가 한 기도의 덕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진짜 기도를 잘 해야겠다고 마음 속으로 뜨끔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듈다. ━

心爲法本 心尊心使 심위법본 심존심사

中心念善 卽言即行 중심념선 즉언즉행

福樂自追 如影隨形 복락자추 여영수형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시키고 세상을 만든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과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 법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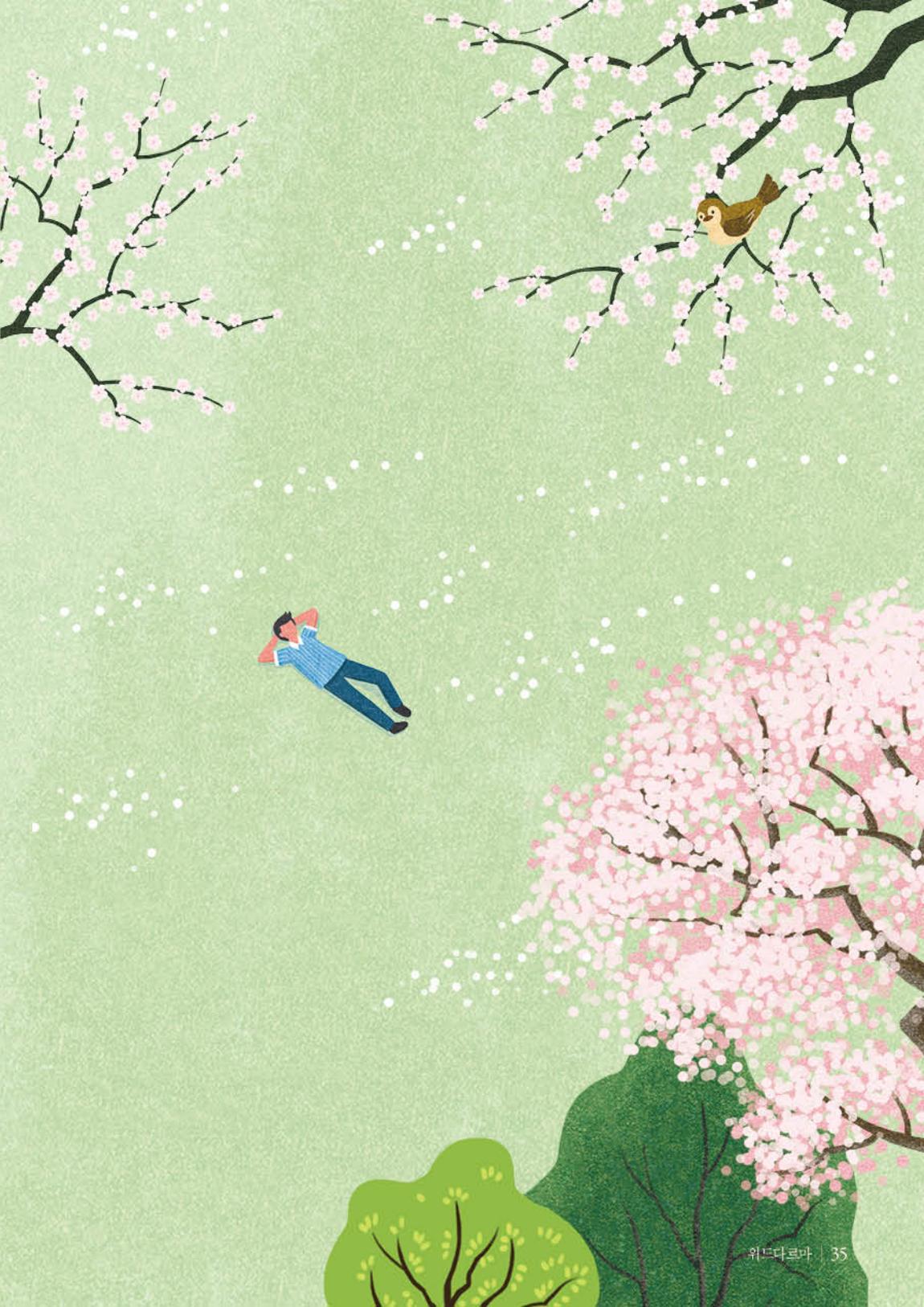


## 사람

김대곤  
시인

어여쁜 햇살 가득 머물고 있는  
 꽃을 바라볼 때  
 잠시 내 볼을 스치는 바람  
 사람이 떠오른다.  
 시리게 떠난 사랑이  
 어느새 옆 자리에 앉는다.  
 가만히 바라만봐도  
 좋았던 사람  
 가만히 쳐다봐주지 않고  
 무심히 떠났던 사람

바람으로 왔을까?  
 햇살로 왔을까?  
 꽃잎으로 왔을까?  
 그래도 아직  
 가슴에 맞이할 자리가  
 내게 있는 사람  
 사람이 보고싶다.





3월입니다.

해가 바뀌어 1월에 다진 마음을 새로이 되새겨 봅니다.

새로 다짐한 마음이 3일도 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마다 다짐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좋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에서 숙성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려 깊고 바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숙성시키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의 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가슴 속에 오래두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스스로 잊게 하는 훈련이 필요 합니다. 스스로 잊는 방법에는 마음에 담은 것을 부처님 앞에 털어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곧 해탈입니다.

마음에는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들어주고 생각을 헤아려 주는 넓은 아량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과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아려 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도 속상할 것이고, 그 말을 한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를 헤아린다는 것은 곧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입에 담아주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지'하면서 생각할 틈도 없이 마음 속 말을 입 밖으로 곧장 내뱉곤 합니다.

그러면서 '난 이렇게 할 말은 하고 산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큰 손해입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사람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따뜻한 말, 겸손한 말,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머~얼리 멀어져 갑니다.

상대방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끔은 내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움직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 나만 위로할 수 있는 마음,

항상 고요하고 바깥경계로 혼들리고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다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잊을 것은 잊고, 나쁜 기억은 없애버리고,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여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내 안에 마음씨라는 예쁜 씨앗을 심어 곱고 튼튼한 나무로 키우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이라는 물과 따뜻한 말의 영양분으로 나 자신의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 커다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



## 매화를 보며

조문수(曹文秀)

1590~1647

조선시대 문신, 서예가



風雪孤村夜  
柴扉人不開  
誰憐多病卧  
更惄小寒來  
燈暗花生暈  
爐殘火隱灰  
興來知有處  
牕外放新梅

풍설고촌야  
시비인불개  
수련다병와  
갱겁소한래  
등암화생훈  
로잔화은회  
흥래지유처  
창외방신매

눈보라 치는 외딴 마을에 밤이 깃드니  
사립문 여는 사람 없어라  
병들이 누운 이내 몸 누가 가련해하랴  
소한이 오는 게 더욱 두렵구나  
등불은 어두워져라 불꽃이 가물거리고  
화롯불은 쇠잔해져라 잔불도 재에 숨어드네  
이 흥취 어디서 오는지 알겠노니  
창밖에 새로 편 매화일세

-『설정시집(雪汀詩集)』 권6 「오언율시(五言律詩)」

조문수가 29세가 되던 해 겨울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이다.  
1617년 인목대비<sup>仁穆大妃</sup>에 대한 폐모론<sup>廢母論</sup>이 일어나자 그는 세자익위사  
세마를 사직하고 자신이 태어난 여강<sup>驪江</sup>으로 돌아가 지내게 된다.

벼슬을 그만두고 궁벽한 시골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겨울밤의 모진  
눈보라를 뚫고 찾아올 이 그 누가 있을까. 하지만 병들어 누워 있는 그  
에게는 그것이 서운한 일이었나 보다. 그의 그러한 마음은 소한 앞에서  
더욱 움츠러들게 된다. 한동안 연달아 이어지는 겨울 추위는 모진 매를  
계속해서 맞는 것처럼 아무리 겪어도 두려운 대상이다. 게다가 지금도  
충분히 추운데 한 해 중 가장 추운 절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의 심정  
을 알 만하다. 또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의 시각과 촉각을 어둠  
과 추위로부터 겨우 지탱해주고 있던 등불과 화롯불은 거의 꺼지려고  
하기까지 한다.

지금 그의 세상은 온전히 겨울이다. 그가 지내고 있는 시골집은 그의  
나이 26세에 별세한 선친과 함께 보냈던 유년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곳이다. 집안 곳곳마다 선친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터이다. 또한 20세에 진사시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벼슬을  
하다가 처음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제 그에게 그가 처한 시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과는 유리된 별  
개의 고독한 적막의 시공간이 된다. 그 시공간 속에 갇혀 절망하고 있  
는 어느 순간 그의 눈에 막 창 밖에서 꽃봉오리를 틀 놓은 매화가 들어  
온다. 매서운 한기 앞에 온갖 물상들이 힘을 잃은 천지에서 기특하게도

자신의 힘으로 꽃을 피운 매화를 본다. 미미하지만 장엄한 그 사실 앞  
에 그는 갑자기 어떤 힘을 얻는다. 그것은 어쩌면 잊고 있던 봄에의 희  
망이 아니었을까. 그의 세상이 온전히 봄이 되는 희망 말이다.

이 세상에 처음 겨울이 생기고 매화가 존재했을 때부터 매화는 언제  
나 모진 추위를 견디고서 기어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왔다. 천지가  
없어지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추위를 견뎌  
야만 한다. 그렇다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서 모든 꽃 가운데 가장  
먼저 피는 매화의 기상을 우리가 닮아보는 것은 어떨까.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강만문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  
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 변해도 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 스키나답서스Pothos

이태용  
원예 교육가



### 추억이 떠오르는 골목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못 쓰는 스티로폼 상자에 심어져 있는 꽃이나 채소를 흔히 볼 수 있다. 커다란 하늘색 플라스틱 통이나 예전에 '다라이'라고 불렀던 자줏빛 고무 대야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종종 눈에 뜨인다.

'화분이 좀 더 예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벼릴 물건을 멋진 화분으로 변신시킨 주인의 솜씨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썰렁하고 삐막했을 골목을 따뜻하고 풍성한 공간으로 바꾼 주인의 마음씨 또한 이 공간처럼 따뜻하고 풍성하리라 짐작해 본다.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쁘게 피어 있는 패랭이꽃을 보고 고향의 뒷산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토마토를 보고 어린 시절 학교에 있었던 텃밭을 떠올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오는 무의싹을 보고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 시들어버린 맨드라미를 보고 인생무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지나다니기 힘든 좁고 오랜된 골목. 이런 골목에서 우리는 식물 덕분에 추억을 떠올리고 꿈꿀 수 있다.

## 성격은 원래 그대로

스킨답서스의 고향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이다. 솔로몬제도는 남태평양의 다른 섬들이 그렇듯 일 년 내내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이런 날씨 덕분에 스키답서스는 이곳에서 잘 자란다. 줄기가 쑥쑥 뻗을 뿐만 아니라, 매끈하던 잎의 가장자리는 자랄수록 들쭉날쭉한 모양으로 바뀐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스키답서스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자라는 편이다. 우리나라가 솔로몬제도에 비해 춥고 건조하기에 잎의 가장자리에 들쭉날쭉한 모양이 안 생긴다.

그렇다면 스키답서스는 솔로몬제도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이 전부 변해 버린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덩굴을 만드는 성질도 똑같고, 줄기를 잘라 물에 꽂으면 끝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성질 또한 똑같다.

그래서 벽걸이 화분에 심어 멋지게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든 조그만 컵에 물을 담고 줄기 하나를 꽂아 놓든 우리나라의 스키답서스에서 솔로몬제도의 풍광을 느끼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 스테디셀러에는 이유가 있다.

요새는 예쁘고 특이하게 생긴 식물이 많다. 동일한 식물에서도 계속 새로운 품종이 개량되고 있는데, 심지어 장미 같은 경우는 정확한 품종 개수를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유행이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

끊임없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그에 비하면 스키답서스는 품종도 그리 많지 않고, 그나마 잎의 색깔만 약간 다를 뿐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다. 스키답서스는 현재 약 50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스키답서스는 오히려 평범한 생김새와 키우기 쉬운 성질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원예식물의 스테디셀러인 셈이다.

혹시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멀미를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이 달리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항상 남들과 비교 당하다 보니 자신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해매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스키답서스를 권하고 싶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고, 잎에 묻은 먼지를 닦아 주다 보면 정신없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변해야 할 부분과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스키답서스가 차근차근 알려줄 것이다. 지금 당장 스키답서스를 만나보세요. ━



## 왕의 재판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장



어느 나라 왕궁에 옷을 넣어 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도적이 들어와 창고의 옷을 모조리 훔쳐 갔습니다. 왕은 포졸을 풀어 범인을 찾게 했습니다. 며칠만에 용의자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여기 도적을 잡아왔습니다. 증거로 옷 몇 벌을 빼앗아왔습니다. 그 옷이 여기 있습니다.”

포도대장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수고하였다. 그 도적은 내가 재판할 테니 내 앞에 데려 오너라.”  
왕은 용의자로 붙잡힌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옷은 그대가 훔친 것인가?”

“대왕이시여! 저 옷은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선조 때부터 저의 집에 있던 옷입니다.”

도적은 절대로 훔친 것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윗대 어른들이 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테지.”

“윗대의 어른들뿐 아닙니다. 제가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어 보라.”

그런데 이 옷은 궁중에서 특별히 만든 것이어서 입는 법이 달랐습니다. 도적은 옷을 거꾸로 입고 말았습니다. 팔이 들어가야 할 소매에는 다리를 끼우고, 바지가랑이에는 팔을 끼웠습니다.

“되었다. 이미 판결은 났다. 그대는 어째서 그대가 입어본 일이 있다  
는 옷을 거꾸로 입는가?”

도적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

## 광복의 투지 - 남자현 지사

보현 전수  
실지사 전수



난공불락,

왜세의 도마 위에 섬섬옥수 열 손가락 얹어 놓고 하는 말.

천지신명 듣거든 사람세상 빨원이요 탄압의 말뚝에 국적 따로 있으리까.

조선여가 무명지 단칼에 내리치니 피로 받아 쓴 대한여자독립원.

아직도 떠도는 아낙의 무명지.

- 고정희. <남자현의 무명지>

독립을 위해 세 번이나 손가락을 절단<sup>斷指</sup>한 남자현 지사<sup>志士</sup>의 별명은 '여자 안중근'이다.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에 단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였다. 그런 지사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더 있으니, 청산리 대첩의 부상자들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붙여진 '독립군의 어머니'이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유학자 남정한의 딸로 태어난 지사는 부친의 제자였던 김영주와 결혼했으나, 그들의 결혼생활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별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운동에 남편 김영주가 의병에 가담 했다가 홍구동 전투에서 그만 일본군에 의해 전사하며 끝이 났다. 스물 넷의 나이에 임신 중이었던 지사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고, 의병운동의 여파로 친정아버지와 오빠마저 잃게 된다. 홀로 된 그녀는 20년 이상을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무를 다했다.

시어머니 사망 후 1919년 3·1 운동 당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목격 후 무장 항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지사의 당시 나이 47세. 삶의 무게에 지쳤을 법도 한 지사는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중국으로 가서 서로군정서<sup>西路革政署</sup>라는 무장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고, 그곳에서 독립군의 세력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들을 신흥무관학교로 입학시켜 독립군으로 키운다.

이때부터 지사는 직접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전투 중 다친 부상병의 간호를 담당하며 함께 싸웠다. 그녀가 '독립군의 어머니'라

불린 것도 이때부터였다. 한명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는 지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고된 전투에 쉴 법도 했을 텐데 전투가 없을 때는 만주 각 마을을 누비며 12개의 교육소를 세워 여성과 어린이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다. 그런 업적 또한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지 싶다.

지사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1926년 54세 때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서울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발 앞서 송학선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지사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1927년 길립 대 검거 사건으로 47명의 독립운동가가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 인도 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지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안창호를 접견하여 밀명을 받아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하는데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켜 석방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 뒤 지사의 나이 61세.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자 일본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 육군대장이 중국 장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암살을 결심한다. 권총과 폭탄을 몸에 숨기고 허름한 중국 노파의 모습으로 잠입하여 거사를 준비 하던 중 한국인 밀정의 밀고에 의해 그만 불잡히게 되고 감옥으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이 때 지사는 남편의 피 묻은 군복을 변장한 옷 속에 입고 있었다고 한다. 먼저 앞서간 남편에 대한 그리고 동지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과 함께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후 6개월 동안 고문과 심문이 이어졌다. 이에 지사는 굴복하지 않고 단식으로 투쟁을 계속하다 결국 쓰러지게 된다. 병보석으로 석방된 지사는 자신의 몸을 건사할 생각이 없었다. 죽음을 내다본 지사는 아들과 손자에게 249원 80전을 주며, 200원은 독립되는 날 정부에 축하

금으로 전달해달라는 당부를 하며 철저한 독립군의 인생을 마무리 했다. 이후 지사의 아들은 해방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임시정부 요인에게 200원의 독립축하금을 전하였고, 1962년 정부는 그녀에게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sup>追叙</sup>했다.

제법 많은 이들이 지치고 지쳐 독립을 의심하며 일본에 무릎을 꿇고 살기만을 강구하던 그 시절 지사는 독립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은 것이다.

남자현 지사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지로 손가락 세 개를 절단한 일화로 유명하다. ‘여자 안중근’이란 별명을 얻은 이유일 것이다. 독립군 내부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자, 7일간 금식기도를 한 후 손가락을 잘라 독립군 간부들에게 통합을 호소하는 혈서를 보냈다. 이에 분쟁을 접고 화합을 이루었다고 한다.

두 번째 단지는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민족대표들의 통합을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지는 1932년 국제연맹 리튼 조사단이 하얼빈에 오자 손가락을 잘라 흰 수건에 ‘朝鮮獨立願(조선독립원)’이라고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 보내 독립을 호소했다.

지사가 힘 약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강했던 그녀의 울부짖음이지 않았을까한다. 지사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 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독립군으로서 치열했던 그 삶속에서 그녀는 혼들리지 않고 맑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감사할 따름이다. ▲

## 두루미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새를 공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보고 싶어지는 새가 있다. 바로 흔히 학 또는 단정학<sup>丹頂鶴</sup>이라 불리는 두루미다. 새해가 되면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무엇보다 새해 달력 사진으로 자주 등장하기에 ‘새해는 곧 두루미’로 각인되어 있기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새이다. 더욱이 고고한 자태에 한 번쯤 넋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중독된 맛을 다시금 경험하고픈 맘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두루미는 예부터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겼다. 또한 무엇보다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귀하게 여겼던 새이다. 십장생의 하나로 많은 그림

과 문학에도 자주 등장하였으며 선비들은 두루미의 지조와 절개를 닮으려 했다. 실제 두루미는 50~60년을 산다고 한다. 야생 개체를 통해 측정한 자료는 아니지만 동물원에서 사육된 개체의 경우 최대 75년을 산 기록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해마다 짹을 바꾸어 번식하는 여느 새들과는 달리 한번 맷은 짹과 오랜 기간 연을 맷는 것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긴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경우 새들은 화려한 번식 깃을 가지고 암컷을 유혹하거나 아름다운 소리로 짹을 찾는다. 대신 두루미는 암수가 같은 깃을 지녀 화려함으로 짹을 유혹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두루미는 짹을 맷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춤을 춘다. 두루미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복합하고 다양한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루미의 춤을 본 뒤 만든 학 춤이 지금도 부산 지역에 전래되어 오고 있다. 비단 커다랗고 하얀색의 두루미가 춤을 추지 않더라도 다른 두루미류와 달리 사뿐사뿐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기품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 목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쇠재두루미 등 7종류의 두루미류가 있다. 그중 두루미를 비롯한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개체수로는 흔하게 관찰된다. 재두루미는 전체적으로 잿빛이며 얼굴 주변은 붉은 색을 띠며 흑두루미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며 목과 머리는 흰색이다. 두루미는 전체적으로 흰색이며 목과 날개(접으면 꼬리처럼 보인다)는 검고 붉은 색의 정수리가 특징이다. 피부가 노출된 붉은색의

정수리 때문에 단정학이라 불린다. 두루미의 키는 큰 개체는 160cm 이르기도 하며 몸무게는 큰 경우 10kg을 넘기도 한다. 날개 길이는 2.5m 달한다. 재두루미와 흑두루미 또한 과거부터 국내에 살고 있었지만 예부터 예술과 문학에 두루미만 언급되는 것은 두루미가 지니는 흰색과 대비되는 짙은 검은색이 주는 단아함과 더불어 큰 키와 큰 날개에서 베어 나오는 기품 때문일 것이다.

현재 두루미의 전 세계 생존개체수는 2,750여마리로 알려져 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이면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남하하여 월동을 한다. 일본 북해도에는 1,000여마리가 서식을 하는데 이들은 텃새로 북해도 지역에서만 머문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인 1,000여마리가 월동을 하고 연천에서는 100여마리 내외 그 외 지역에서는 30여마리 내외로 서식을 한다. 과거에는 충남, 경남, 부산 지역에서도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인간의 간섭이 덜한 DMZ접경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전세계 생존 개체수를 고려할 때 철원의 1,000여마리는 적지 않은 수이다. 전세계 생존수의 1/3이 철원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므로 철원 서식지의 보전에 두루미라는 종<sup>■</sup>의 생존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철원 서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농녹하지가 못하다. 민간인통제선이 과거보다 북상하여 안정된 서식처가 줄어들었다. 그나마 남은 곳마저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철원 지역에 불어 닥칠 거센 개발의 바람 앞에 과거 대구 화원유원지<sup>1)</sup>가 그랬던 것처럼 두루

미 서식처는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연천의 두루미가 터전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연천에 자리한 두루미 서식지에 땅이 들어섰다고 한다. 결국 사람의 편익을 위해 두루미의 자리가 또 사라졌다. 남북 화해의 훈풍이 DMZ를 녹이고 있지만 두루미의 생존은 살얼음 판 위를 걷고 있다. 그리고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커가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조 그리고 고귀함은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고귀함과 지조는 이제 의미 없어 보이는 건 나뿐일까? ━



1) 과거 5000여마리의 흑두루미가 서식하였지만 개발 이후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시기 일본 이즈미 공원에서는 개체수가 급증하였음. 일본 이즈미 공원에는 현재 1만마리의 흑두루미와 3000마리의 재두루미가 서식하고 있으며 과거 1960년대에는 전체 개체수가 1000여마리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가 있는 직후인 1976년과 1992년 개체수가 급증하여 현재에 이르렀음.

디  
딥풀  
봄날

지현 전수  
자석사 전수

봄날

- 김용택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겨울 끝자락의 한 달 남짓, 떠나거나 남는 사람들의 소식으로 술렁  
댄 시간들이 이제 가뭇해질 때 남도의 꽃소식에 다시 마음이 살살 간  
지럽다.

겨우내 미세먼지의 뿌연 하늘과 시름하는 와중에도 봄은 기지개를  
켰는지 남녘의 어느 따사로운 산사에서 홍매화로 피었다는 첫 기별을  
넣더니 여기저기 하얀 봉오리를 터트린다는 연서<sup>戀書</sup>들이 날라든다.

아쉬움인지 그리움인지 잔뜩 흐린 겨울의 뒷덜미를 잡고서도 마음이  
설레고 있다는 건 분명 가슴 한켠에 봄바람이 일렁이고 있다는 게다.

어디선가 붉은 가슴 통째로 뚝뚝 떨어지고 있을 동백의 선혈이 그럴  
것이며, 동장군의 서슬퍼런 바람을 뚫고 마침내 향기에 절어 하얗게  
퐁퐁 피워내는 매화 또한 얼마나 마음을 간지럽히고 말 것인지…….

나 찾다가 서원당의 방석이 홀로 있거든  
春風에 시름겨워 佛前에 고하고  
기어이 꽃마중 나간 줄 알그라

봄날



아침 두 뺨 위로 간질거리는 햇살이며, 저녁 산책 시간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마치 영혼까지 일깨워 주는 듯하다. 새들은 지저귀고 풀벌레는 노래한다. 부드러운 숨은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을 연주한다. 매일 밤 건강한 두 발로 산책의 숲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없는 행복이다.

내가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 산하의 대자연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계를 어김없이 선물 해 준다. 내일 아침 해가 뜨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한 숨 들이쉬지 못하면 죽고 미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들숨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봄에 꽃을 피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려고 구름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 저 장대한 밤 하늘의 별과 은하수 조차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져 있다. 풀꽃 한 송이에서부터 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저절로 생명을 피워내고 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대로 놀랍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 이처럼 무위로써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나 또한 무위로써 살아가면 된다.

무위란 함이 없이,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자연이 그렇듯 인간 또한 무위의 존재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 아닌가. 그러니 인간이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자연스럽게, 저 대자연의 무위행을 따르면 된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집착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에 더 많이 감사하고 누리고 만끽해 보라. 무엇을 하고도 ‘내가 했다’는 상을 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온 우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낸 것임을 받아들여 보라.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을 가까이 해 보라. 인공적인 조형물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더 많이 교감하고 가까이 해 보라. 헬스장을 찾기 보다 산 길을 걷고, 가공식품을 먹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가까이 하라.

일어나는 생각도 그저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오고 가도록 놔둘 일이지,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거나, 그 생각을 실체화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말라. 그저 모든 생각들이 흔적 없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 인위적인 노력이 개입되는 유위행 보다, 노력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쓰고 사는 무위행 속에 사실은 더욱 강력한 힘과 지혜와 자비가 있다. 안 하는 듯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사사로운 아상이 원동력이 되는 내 노력이 없을 때, 우주 본연의 무한 동력이 삶을 운행해 간다. 아상이 없을 때, 대기대용<sub>大機大用</sub>의 무한 우주가 무한한 쓰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대기대용이란, 말 그대로 이 우주는 크나큰 무한 동력의 무한 생명의 기관 즉 대기로써 이 우주 전체를 한바탕의 쓰임으로 돌리는 대용을 이루어낸다는 뜻이다.

나도, 너도, 자연도, 하늘도, 우주도,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존재가 바로 이처럼 따로 따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대용이라는 이 하나의 우주 무한동력에서 동시에 운행되는 것이다.

연기적으로 상호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서로서로 톱니바퀴 아구가 딱딱 드러맞듯이 하나가 움직일 때 무한한 우주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한생명의 기관인 것이다. 그러니 이 대기대용의 무한 우주의 운행을 외면한 채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겠다고 우기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무한동력의 힘은 끊기고 만다.

그러니 이 장엄하고 장대한 무한한 우주법계의 대기대용의 운행 법칙을 깨닫는 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우주 속에 녹아들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우주전체를 내어 쓸 수 있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한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2  
- 개미와 베짱이

박현희  
사회과 교사



개미의 삶을 찬양하는 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개미의 삶은 나쁘다. 그의 삶이 불순한 목적으로 찬양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 왜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가 우리 사회에 그토록 널리 퍼졌겠는가? 노동을 찬양하고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것은 산업화를 겪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다.

1834년 영국에서 개정된 구빈법<sup>教貧法</sup>은 이름만 보면 빈민 구제를 위한 법 같지만 사실을 게으름 추방법이었다. 이 법은 떠돌아다니는 민요가수 등 연예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했다. 한군데 진득하게 정착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은 살 곳을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당연히 사람들이 일하기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야 했을까?

사회에는 일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유급계급이라 한다. 유한계급들이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잉여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기껏 생산된 잉여가 노래나 부르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는 건달들을 먹이고 재우는 데 쓰인다면 분통터질 일 아니겠는가? 게다가 그 건달들이 마을에 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자판이 벌어지니 그 또한 답답한 노릇이고, 그러니 게으름을 범죄 취급하고 죽어라 일하는 것을 천국에 가까이 가는 미덕이라 설파할밖에.

우리에게도 산업화 과정에서 유사한 일들이 있지 않았던가? 선량한 사회 풍속을 정착시키기 위해 성인들의 머리 길이며 치마 길이를 단속하기도 하고, 집에서 술 담가 먹지 못하게 하고, 농한가에 푼돈 놓고 벌이는 화투판을 도박으로 처벌하기도 하면서, 반듯한 노동 생활을 찬양하지 않았던가. 개미의 삶에 대한 찬양은 이 시절에 유포된 것이다.

그러나 개미들이여, 내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할지 말지이다. 개미의 선량한 노동이 오직 개미의 선량함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노동의 의미가 더 많은 이들을 노동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재해석되고 배치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다.

### 개미의 부지런함은 욕심 때문이다.

개미의 삶이 나쁜 이유는 두 번째로, 개미의 근면이 욕심에서 비롯되며 때문이다.

원래 <개미와 베짱이> 우화에는 개미가 한때 이웃을 시샘한 나머지 그의 곡식을 훔친 농부였다는 이야기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화가 난 제우스 신은 그 농부를 개미로 둔갑시켜 버렸다. 이솝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의 형체는 변했지만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들판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밀과 보리를 모아 자신을 위해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수렵 채취 사회에 살고 있는데 미래에 대비한답시고 당장 먹을 것도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나무 열매란 열매는 죄다 따 모아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누군가가 생겨날 것이고, 따 놓은 나무 열매도 다 먹지 못해 썩어 버릴 것이다. 미래에 대비하여 열심히 일한 누군가는 사실은 이웃이 먹을 과일을 자신을 위해(자신도 다 쓰지 못하면서) 비축한 것일 뿐이다.

지금은 수렵 채취 사회가 아니니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비축할 수 있을까? 쌀? 김치?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것은 돈뿐이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비축해야 안심이 될까? 1억? 10억? 100억? 오늘의 소비에 필요한 돈은 한계가 있지만, 내 일을 위한 돈에는 한계가 없다. 얼마를 모아도 미래는 늘 불안하고, 그러니 모을 수 있는 한 계속 모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 안 좋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충분히 모을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바쁜 이들이 더 많다. ━

# 친구 같은 전수님들

여순애  
자석사 교도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지만 엄마와 비슷한 연세의 전수님들과 보낸 시간이 많았다. 법상인 전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부처님의 법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법상인 전수님은 나를 존중해주시고 인격체로써 대해 주신다. 그분과 자석사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꿈같이 흐르고, 자심관 전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하셔서인지 전수님은 날 편하게 대해 주셨다. 스승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자심관 전수님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해 주셨다. 다른 사원으로 가셨지만 내가 쓰는 글을 꼭 읽고 계시며 응원의 말도 아끼지 않으신다.

지현전수님이 오시면서 난 나와 비슷한 연배의 스승님을 만나뵐 계기가 많이 생겼다. 지현 전수님은 나에게 친구 같은 교화를 하신다. 그리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다.

내가 정각사 다도수업을 배우려 할 때 전수님께서 ‘쓰지 않는데 물건에 주인이 있다’며 다기세트를 나에게 주셨다.

또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주셨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셨다. 그걸 계기로 자성 전수님, 묘홍 전수님과도 어렵지 않게 친해졌다. 그 분들과 가끔씩 전화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지식과 경험을 한꺼번에 얻는 것 같다. 그럴 때 ‘참 행복하구나’ 하

는 걸 느낀다. 배움과 그 배움의 기쁨을 함께 가르쳐 주시는 지현 전수님과 젊은 전수님들께서 나에게 대하는 교화방편은 친구처럼 편하게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바라보는 전수님 한 분 한 분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시다. 그런데 참 좋은 분들이시다.

교화에 힘쓰시는 노고를 잘 알기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점점 젊은 스승님으로 교체되면서 사원의 분위기가 친숙하고 편안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전수님들과 대면하면서 겪고 있다.

총지종 교세 발전을 꿈꾸는 보살로써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해하고 보답하고자 한다.

스승님들 화이팅!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불공을 편안하게 회향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

## 묵은 차 활용법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차를 마시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차를 통해 즐거움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차를 개봉하고 오래되어 유통기한을 넘긴 차나 보관을 잘못해 습기를 먹어버려 차향이 사라진 차를 이용해 다른 느낌으로 즐기는 차훈요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차훈이란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차의 훈기를 호흡을 통해 들이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 차훈법

**준비물** | 작은 탁자, 다포, 큰 디완(큰사발), 뜨거운 물, 묵은 차, 큰 수건

- ① 탁자위에 다포를 깔고 디완에 뜨거운 물을 부어 디완을 데워줍니다.
- ② 데워진 디완에 차를 넣고 코로 깊게 들이쉬면 코끝으로 그윽한 차향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디완의 열기로 인해 숨어있던 차향이 살아나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를 세 번 이상 반복해서 호흡을 깊게 해 줍니다.
- ③ 향을 깊이 느낀 후 디완에 뜨거운 물을 붓고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차가 우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들숨 날숨 반복해 깊게 호흡을 해줍니다.
- ④ 15분 정도 시행하는데 명상 음악이나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 놓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 ⑤ 얼굴과 몸에 땀이 나면 그대로 말리는 것이 좋으며 다만 화상에 조심해야 합니다.

차훈을 하게 되면 온기로 우리 몸이 따뜻하게 덥혀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며 눈과 귀가 맑아지고 밝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차를 마시는 효과와 같은 맑고 윤기가 나는 피부와 함께 밝고 아름다운 얼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 차 족욕법

준비물 | 대야, 바닥깔개, 수건, 의자, 뜨거운 물, 묵은 차

- ① 먼저 발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 합니다. 차훈 했던 물을 차 족욕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 ② 대야에 차훈 했던 물을 담고서 차와 뜨거운 물을 더 부어서 (40도정도) 두 발을 담급니다.
- ③ 10분 정도 지나면 한쪽 발을 꺼내어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서 발을 마사지 해 줍니다.
- ④ 천천히 마사지를 다한 발을 닦은 후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 준 후 수면 양말을 신도록 합니다.(혹은 오일이나 크림을 바른후 마사지하고 양말을 신어도 됨)
- ⑤ 다른 쪽 발도 똑같이 해줍니다.
- ⑥ 한번에 20분 정도가 좋으며 물의 온도는 각자의 느낌대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족욕을 자주 함으로써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좋아져 근육이 이완되며 몸이 가벼워지고 온몸의 피곤함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 족욕과 함께 또는 마친 후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게 되면 온몸이 따뜻해져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 후에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누워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온몸으로 차향을 느껴본다면 차를 우려서 마시는 행복함과 또 다른 느낌의 차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묵은(습기 먹은) 차 살리는 법

- ① 깨끗한 프라이팬 위에 면포나 종이 호일을 깔고 약한 불로 프라이팬을 서서히 달굽니다.
- ② 습기 먹은 찻잎을 올려놓고 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볶아줍니다. 그러면 묵은 냄새는 모두 사라지고 다시 차향이 살아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 해 봐야 합니다.

먼저 묵은 찻잎이나 찌꺼기를 용기에 담아 음식 냄새가 늘 배어있는 냉장고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신발장에 넣어두고 일주일마다 갈아주면 불쾌한 냄새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집이나 리모델링한 집에 묵은 차를 프라이팬에 올려 연기가 날 정도로 그을린 후 2시간 정도 두면 폐인트나 새집 냄새가 제거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차를 흙과 섞으면 화초의 비료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차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게 하고  
목만 축여주는 게 아니라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 준다.▲

-초의선사의차시 중에서

# 다섯 손가락의 싸움

법일 정사  
수인사 주교



다섯 손가락이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엄지손가락** :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를 쓰니까. OK 손가락이야. 엄지 척 알지.

**집게손가락** : 내가 제일 중요해. 나는 바로 지혜의 손가락이야.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나를 쓰니까. 이것, 저것, 지혜롭게 선택을 하며 가리키지.

**가운데손가락** : 웃기는 소리 그만해. 내가 제일 크고 길어서 제일 멀리까지 볼 수 있지. 그리고 나는 부처님 손가락이야. 왜냐하면 바로 중도를 상징하지. 그러니 내가 제일이지.

**약지손가락** : 미안하지만 다들 틀렸어.

내가 제일 중요해. 나는 사랑의 손가락이야.

약혼이나 결혼반지를 끼우는 언약의 손가락이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어. 언약은 바로 약속이며 신뢰지. 믿음이라고.

이때 새끼손가락이 끼어들며 한 마디 했다.

**새끼손가락** : 나는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으며 가끔은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나를 이용해 쓸어 치우기도 하지만 나는 부처님께 합장할 땐 언제나 내가 제일 부처님께 가까이 있잖아.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해 보면 알 수 있어.

어느 사회나 절이나 가족 간에도 온갖 궂은일을 묵묵히 다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새끼손가락처럼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기 때문이지요. ━



# 대비태장 생만다라

大悲胎藏  
生曼茶羅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대 클 - 대	悲 슬플 - 비
胎 아이밸 - 태	藏 감출 - 장
生 날 - 생	曼 길게꼴 - 만
茶 차 - 다	羅 벌일 - 라

만다라에 그려져 있는 존상<sup>尊像</sup>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佛·如(불·여래) ② 菩薩(보살)
- ③ 明王(명왕) ④ 諸天諸神(제천제신)

①과 ②는 더할 나위 없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③의 명왕이라는 것은 밀교 특유의 존상입니다.

명왕의 얼굴은 부처님과 달리 좌우로 빼뚤빼뚤한 눈, 적의를 드러내는 입, 헝클어진 머리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신은 알몸이고 하반신에는 짧은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명왕은 아무래도 인도의 노예 계급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이나 관음보살이 자비의 마음으로써 다정하게 중생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만, 비뚤어진 자, 고집 센 자는 외면합니다. 외면한 사람은 스스로 구제를 거부하고 있으니 자신의 잘못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대일여래부처님은 명왕들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명왕은 손에 검을 들고 견삭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을 협박하고 묶어서 구합니다. 이것이 명왕의 역할입니다. 명왕의 모습·형태는 홀륭하지 않지만 항상 현장에서 대일여래의 뜻을 집행하니 밀교 만다라의 주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다라에는 크게 태장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가 있습니다. 태장만다라는 대비태장생만다라를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태장만다라는 『대일경』이라는 밀교경전을 바탕으로 그려진 만다라입니다. 이 경우 ‘태’는 ‘모태’라는 뜻입니다. 대일여래는 남성적인 부처이니 대일여래의 모태라는 것이 이상하지만, 우리들의 살아 있는 이 세계는 진짜 태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땅 끝까지 날아가 그곳 기둥에 글자를 적어놨는데, 그곳은 부처님의 손바닥이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상은 모두 대일여래의 태내와 같습니다.

태장만다라에서는 이 부처의 세계를 열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열두 조각에 약 400개의 존상을 그립니다. 세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백십사 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은 중대팔엽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만다라의 중심입니다. 더욱이 그 중심에 대일여래가 있고, 대일여래의 둘레에 4여래, 4보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4여래 4보살의 활동을 통해서 대일여래의 자비의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일여래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즉, 태장만다라란, 중앙의 대일여래(태양)의 자비의 빛이,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두루 비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

# 무용지용

無用之用

無 없을 - 무

之 의 - 지

用 쓸 - 용

用 쓸 - 용

쓸모가 없는 것의 쓰임새라는 뜻으로, 얼핏 봐서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 존재가 도리어 크게 쓸 곳이 있다는 의미.

장자가 어느 날 한 제자를 데리고 옛 친구를 찾아가느라 숲이 울창한 산을 지나다가 한 나무꾼을 만났다. 나무꾼은 잎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 한 그루를 쳐다보더니 그냥 돌아서는 것 이었다.

“나무를 베려다가 왜 그만두시오?”

장자가 묻자, 나무꾼이 대답했다.

“보아하니 쓸모가 없어서요.”

장자는 조금 가다가 혼잣말을 했다.

“저 나무는 재목감이 되지 못함으로써 천수 天壽를 다할 수 있겠군 그래.”

이윽고 친구 집에 도착하자, 몹시 반긴 친구는 장자를 대접하기 위해 하인더러 거위 한 마리를 잡으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이 물었다.

“한 놈은 잘 울고 다른 놈은 울지 않습니다.  
어떤 놈을 잡을까요?”



“그야 못 우는 놈을 잡아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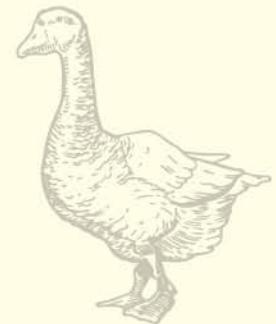
나중에 제자가 장자를 보고 물었다.

“산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살아남았고, 이 택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둘 중의 어느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쓸모 있음과 없음의 ‘중간’에 서고 싶네. 그러나 그 중간은 도道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도가 아니므로 화禍를 아주 모면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자연의 도’에 입각해 여유를 가지면 괜찮아. 영예도 비방도 없고, 용이 되었다가 뱌이 될 수도 있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한 군데 불박이지도 않는다면. 오르락내리락하며 남과 화목하게 지냄을 자기 도량으로 삼고, 만물의 근원인 도에 근거하여 만물을 부릴 뿐 아니라 그 만물에 사로잡히지 않으니 화를 입을 리가 없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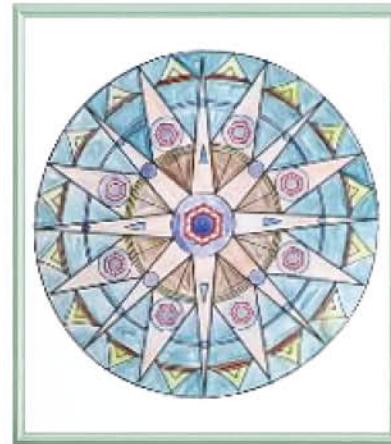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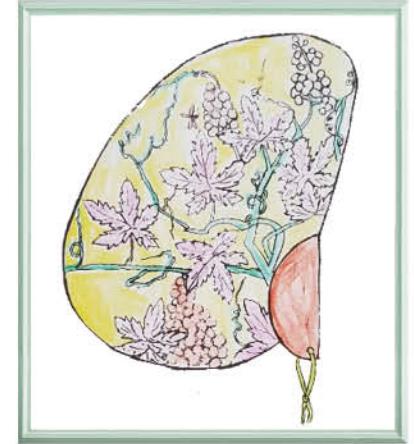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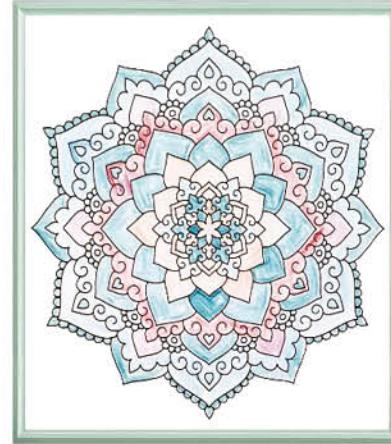
장자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쓸모 있다고 믿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반대로 ‘쓸모가 없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

- 구인환의 『고사성어 따라잡기』중에서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국광사 이우용 교도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업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발 행 일 총기 48(2019)년 3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 행 불교총지종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 손병희

올해 3월은 뜻 깊은 날이다.

오는 3월 1일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2019년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고종황제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말모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말이 존재함을 보았다.

아이들이 우리말과 우리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 온생애를 건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재한 문화예술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3월에는 이런 문화예술작품을

한 번쯤 만나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3월 1일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려고 한다.

3월호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현실의 시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현실을 수행의 장이라고 생각하라  
시시각각 닥쳐오는 현실의 번뇌를  
나를 연마하는 금강석이라 생각하라

- 환당 대종사 -